

2019년도 제8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발언자	발언내용
간 사 (구 매 팀 장)	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6조에 의거, 재적 위원 8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MRO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 관련 계약방법 심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10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부서장(구매팀장)	<<제2019-10호 부의안건 설명 >>
위 원 장	구매팀장으로부터 제안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부서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원	3쪽에 보시면 사업목적이 4가지가 나오는데, 5쪽에 나와 있는 제안서 평가기준에 사업목적이 요구하는 4가지 사항들이 적절하게 평가기준으로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상호협력관계’ 부분에 ‘도내공급사 선정 및 협력체계’ 부분은 사업목적 4번째 내용에 상당히 부합해서 비교적 배점비율을 높인 부분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나머지 3가지 사항들이 기타 평가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까? 설명하실 때 기존의 일반적인 잣대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던데요.
제 안 부 서 장	5번 페이지에 보시면 ‘물품조달 및 품질확보 관리방안’ 이라든지 ‘가격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가격관리방안’ 및 ‘KPI 제시 및 실현가능성’ 이 포함된 상호협력관계 20점 부분이 대부분 사업목적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위 원	그 과업목적을 최대한 그 달성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기준도 목적에 부합되는 쪽으로 내용과 평가요소를 기초로 평가기준 점수까지 차등화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17페이지 보면 KPI 기준을 제시하고 나서 SLA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제시한 내용하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SLA를 체결할 때 KPI 설정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제 안 부 서 장	<p>KPI 제시 부분을 보시면 도내 협력사 방안이라든지 제안사가 제시하는 부분과 추가로 협상할 때 저희가 필요한 KPI 부분을 같이 협상해서 그 부분을 SLA를 체결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p> <p>MRO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만 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국가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틀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하게 평가기준을 설정하거나 SLA 평가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p> <p>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른 기관과 조금 다른 부분이 도내 공급사 선정 부분입니다. 품질확보 방안이라든지 가격 방안이라든지 시스템 운영방안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의 기관에서 MRO 업체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 ◎ ◎ 위 원	제안서평가기준에 상호협력관계(20점) 항목 중에 (5)번 KPI 제시 및 실현가능성(2점) 지표가 과연 필요한 항목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배점이 낮게 지정된 것 같긴 한데요.
제 안 부 서 장	제안서 평가기준은 23페이지에 보시면 세부내용이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 ◎ ◎ 위 원	<p>도내공급사 협력체계 실현을 위한 평가방안 제시는 일단 위에 보면 ‘도내공급사 선정 및 협력체계’에서 세부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어있고, ‘KPI 설정의 적정성 여부 및 구체성’ 부분은 낙찰된 업체와 우리공사가협의해서 상호 결정하도록 앞에 쓰여 있어서 이 지표가 필요한지 싶습니다.</p> <p>그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평가항목으로 KPI를 제시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입찰에서 중요하게 본다든지요.</p>
제 안 부 서 장	협상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KPI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업체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협상하는 데 의미를 두었고, 크게 문제가 없다면 가져가야하는 지표 같습니다. 배점이 크지 않아서요.
◎ ◎ ◎ 위 원	네, 배점을 크지 않게 가져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3,954개 품목으로 리스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품목 안에 들어있지 아니면 MRO 구매가 안 되나요?
제안부서장	<p>추가로 저희가 MRO를 중간에 운영하다가 사업부서에서 MRO에서 소모품을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MRO 업체와 협의해서 낙찰률 적용해서 추가등록 하고 있습니다.</p> <p>최대한 저희가 차후에 추가등록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해서 지금 목록에 넣은 상태입니다.</p> <p>MRO를 운영하다 보면 업체에서 1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상응하는 마진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1억 2천 정도는 해야 그 한명이 여유있게 운영하고 성수기 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써서 납품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1억 정도 수준이어서 MRO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위원장	<p>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 게 도내에는 큰 기업체들이 없어서 MRO 시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 입찰 참가했던 업체도 우리공사에서 MRO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도내 제품을 확대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게 쉽게 이행이 안됐어요. 쉽게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정도 규모로 운영하려면 한명을 상주를 시키고 성수기 때는 아르바이트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익이 좀 안 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에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평균 1억 4천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품목도 늘리고 진행을 하려는 사항입니다.</p> <p>관공서가 지금 참여를 거의 못하고 있죠?</p>
제안부서장	네. 도내에서는 저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기업하고 자리 만들어서 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도청이나 이런 데가 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행정소모품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적습니다. 인원수는 많은데요.
◇ ◇ ◇ 위원	행정소모품을 MRO로 해버리면 업체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위원장	<p>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p> <p>저희는 부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제 안 부 서 장	국가공기업도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부품이 많은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MRO를 통해 보니까 절감효과는 지금까지 어땠나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력을 많이 세이브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안 부 서 장	네 그런 쪽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 낙찰률이 93%이었는데 그 이후에 등록된 품목이 많아서 추가한 품목은 낙찰률 적용해서 등록했었고, 실제로 집계는 못해봤지만 행정력이나 직원들의 편의성이라든지, 기존에는 소모품을 직접 업체를 방문해서 구매해야 했는데 납기에 대한 직원들의 편의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 ◎ ◎ 위 원	MRO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전되려면 자재들에 코드를 부여해서 매년 업체한테 품목만 주고 매년 코드를 달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체계적으로 코드를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MRO를 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게되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업체만 선정해서 매년 반복적인 일은 한다면 모르겠지만 관리가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에 대한 이슈가 생길일은 없습니다.
제 안 부 서 장	넘버링 부분은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품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관리가 안되니까 작년정도 부터는 최대한 설비자재팀 등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데 워낙 품목이 많고 인력이 소요되어서 공장에서도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독려하면서 등록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 ◇ ◇ 위 원	직전에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시스템 구축 조건’ 15페이지에 보면 매칭, 연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전 계약에서도 언급 과업이 있었죠? 지금 말씀하신 코드화에 관련된 문제를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지금 제안을 할 수가 있겠네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수 회에 걸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 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자료나 로우 데이터를 새로운 업체에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 원	<p>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물품이 아닌 약간의 시스템 구축이나 연계가 추가 포함된 부분인데, 기존의 업체가 만약 바뀐다는 걸 예상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앞선 계약자가 후속계약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었나요?</p> <p>새로운 업체가 하는 경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p>
제 안 부 서 장	<p>MRO 구매대행 서비스 운영사 1기와 2기가 다른 업체였었고, 그 당시에는 연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p>
◇ ◇ ◇ 위 원	<p>B2B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똑같은 어떤 내용이나 기술, 코드 이런 걸로 운영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p> <p>그러면 전기했던 업체와 새로운 업체의 운영방법이 만약 다르게 된다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기존의 업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서 제안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차계약업체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나몰라라 하고 나가면 안 되니까 후속업체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p>
사 업 담 당 자	<p>15페이지 보시면 ‘시스템 구축조건’ 항목에서 “ERP와의 연계를 위한 일정계획, 구축방법, ERP물품코드 매칭 방법, 연계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연계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6번을 보시면, 6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p> <p>“6) 데이터 확보 가능한 연계방안 제시</p> <p>가) ERP-MRO연계 단절 또는 MRO업체가 교체 되더라도 기존의 구매, 발주 등의 데이터는 ERP에서 확인 되도록 시스템이 연계 되어야 한다.”</p> <p>라고 되어있습니다. ERP에서 모든 것을 다음 업체에 넘길 수 있도록 구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p>
◇ ◇ ◇ 위 원	<p>이번 계약이 아니라 전차 계약에서도 이행이 됐는지가 궁금하긴 해서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기 입찰을 제안서를 자신 있게 낼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p>

발언자	발언내용
◇ ◇ ◇ 위원	입찰참가조건은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이 제안요청서 내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업체가 있어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안요청서 내용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는 있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도려낼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제안부서장	기존업체에 유리해보인다는 말씀이시죠?
◇ ◇ ◇ 위원	네 기존 업체에 유리한 조건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자, 그럼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조건을 달리해서 지금 부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다음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라고 부가적인 임무를 줄 수는 없으니 이번 입찰에라도 그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포함시켜서 다음 입찰 때는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안부서장	제가 그 부분은 다른 기관 입찰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 입찰 나갈 때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위원	타 기관들은 보통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나요?
제안부서장	2~3년 정도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든가 그런 기간을 다 포함하다보면 1년은 너무 짧을 것 같습니다. 기관에 맞게 기관 직원들이 참여하고 적응하려다보면 몇 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또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위원	아까 지적하신 제안서 기술내용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안 되도록 되어있다는 그 말씀만 보완을 해서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내용을 보완하면 다른 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고, 낙찰자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발언자	발언내용
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MRO 구매대항 서비스 운영 계약 방법 등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 해주신 바, 업체간 연결이나 업체가 바뀔 적에 시스템 상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